

제 목 : 부산 산업의 코로나19 영향 실태 분석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부산 산업의 코로나19 영향 실태 분석」을 주제로 지역경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붙임>의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 보고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 ※ 동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님

문의처 : 경제조사팀 조사역 전은경

Tel : 051-240-3856 Fax : 051-240-3859 E-mail :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붙임>

부산 산업의 코로나19 영향 실태 분석(요약)

주요 분석결과

- ◆ **코로나19 발생이 부산지역 기업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매출손실이 컸던 반면, 운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보다 오히려 매출이 증가
 - 이에 따라 지역별로도 운수업체 비중이 높은 중구는 초과 매출을 보였으나, 건설업체 비중이 높은 연제구, 남구와 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강서구, 사하구 등은 매출이 크게 감소
- ◆ **신용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업종에서 대출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경기순응적 신용공급 경향이 강했던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한 경기대응적 신용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목적]** 코로나19가 부산지역 각 산업의 매출과 기업대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회복여건을 점검하고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방법]**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달성하였을 가상(counterfactual)의 매출액과 기업대출 수준을 추정하여 실제 매출액 및 대출액과의 차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
 - 분석에는 부산 소재 2만 7천여개 기업의 마이크로 데이터(한국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모형 추정기간은 2015~2019년, 분석대상기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으로 설정

Ⅱ. 코로나19가 부산지역 기업 매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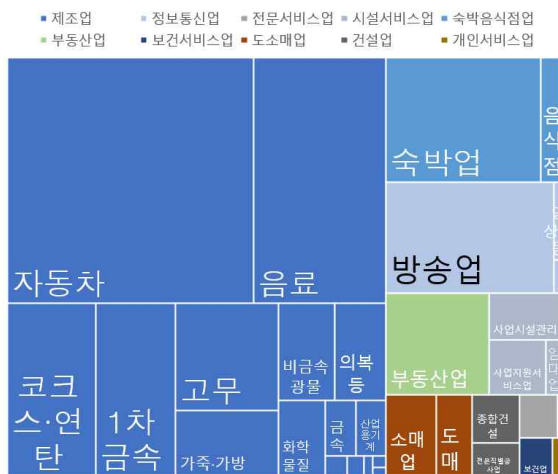
1 산업별 영향

□ **[전산업]** 분석 결과 2020년 중 코로나19로 인한 부산 소재 기업 전체의 매출손실은 13조원 정도로, 업체당 평균 4.8억원 수준으로 추정*

*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기준 수치이며 전수를 대상으로 한 통계와는 절대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산업별]** 특히 분석기간 중 부동산업(업체당 평균 -16.6억원), 숙박음식점업(-10.3억원), 제조업(-6.7억원), 도소매업(-4.8억원) 등의 매출손실이 컸던 반면, 운수업(+4.2억원), 전문서비스업(+1.7억원) 등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보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주요 매출 손실 업종¹⁾



주: 1) 항공운수업 제외

주요 매출 이익 업종



자료: 자체 추정

○ **제조업**의 경우 특히 자동차 제조업*(업체당 평균 -95.2억원), 음료제조업(-51.3억원) 부문에서 매출 손실이 크게 나타났으며,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0.2억원), 금속가공**(15.8%, -2.7억원)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

* 2020년 초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의 닛산 로그 위탁생산 중단도 일부 영향

** 부산 제조업 전체업체수 대비 비중(%): 기타 기계 및 장비 21.4, 금속가공 15.8

— 반면 의료용 물질(+22.5억원), 기타운송장비(+7.7억원) 등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

- 비제조업에서는 항공운송업(-3천억원), 숙박업(-30.4억원) 등에서 특히 매출 손실이 컸으며, 업체수가 많은 도매업*(-4.7억원), 전문직별 공사업*(-2.5억원), 부동산업*(-16.6억원) 등에서도 상당한 매출 손실이 발생

* 부산 비제조업 전체 업체수 대비 비중(%): 도매업 36.7, 전문직별 공사업 12.1, 부동산업 6.3

- 반면 수상운송업(+30.8억원), 기타개인서비스업(+10.6억원) 등은 분석기간중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상운송은 항공운수를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전체 운수업 매출증가를 견인*

* 전국 기준으로는 2020년 운수업 중 택배업 등 육상운송업이 +1.6% 증가하고 수상 및 항공운송업이 11.7% 및 51.0% 감소(통계청, 2020년 운수업조사)

2 지역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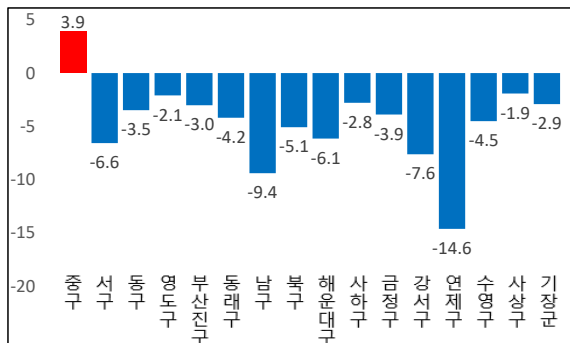
- 부산 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운수업 비중이 높은 중구 소재 업체들의 경우 초과 매출(평균 +3.9억원)을 보였으나,

연제구(-14.6억원), 남구(-9.4억원) 등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강서구(-7.6억원), 사하구(-6.1억원)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의 지역별 영향

(단위: 억원)



자료: 자체 추정

각 지역의 업종 비중¹⁾

(단위: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기타
중구	8.8	2.9	23.2	38.7	6.6	19.4
연제구	10.3	18.4	24.4	2.9	7.8	35.9
남구	17.0	12.8	25.9	10.0	4.2	29.5
강서구	59.3	5.3	24.4	1.7	2.3	6.5
사하구	49.1	5.8	22.8	4.3	2.7	14.7

주: 1) 2019년 업체수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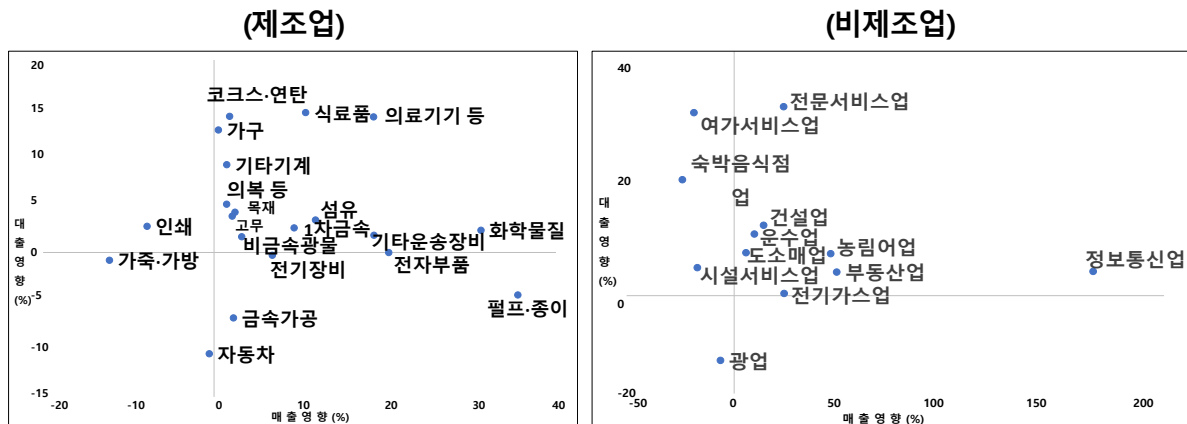
Ⅲ. 코로나19가 부산지역 산업별 대출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가 기업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대출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
-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매출이 증가한 업종에서 대출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순응적 신용공급 경향이 강했던 반면, 비제조업은 매출이 감소한 업종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한 경기대응적 신용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동 분석시 업종의 규모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매출 및 대출 증감을 과거 5개년 평균매출액으로 조정

- 이는 신용공급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생산활동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을 감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

산업별 매출액 및 대출액 영향



자료: 자체 추정

IV.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은 부산지역 기업들의 업종 및 소재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자금 등 신용공급 또한 제조업은 경기순응적으로, 비제조업은 경기대응적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영향을 대량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지역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정책자금 등 신용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